내일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예비소집

전북자치도교육청, 수험표 배부 · 유의사항 등 안내

시험은 14일 전주 · 군산 등 6개 시험지구서 치러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이날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교부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다면 직계가족에 한해 수험표 대리 수령이 가능하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갖고 시험 당일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엔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10분까지는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8시40분 본령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하다.

도내 시험장 중에는 이름이 유사한 곳이 여럿 있으니 시험 당일 잘못된 시험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배치시험장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 및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좋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결재 · 통신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와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마스크 등은 휴대할 수 있다.

반면,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시험장에 갖고 들어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시험장 임의의 장소에서 발견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를 바꿔 풀거나, 본인이 선택한 다른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한다. 시험 중 호흡기 계통의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수험생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시험 당일 실수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6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장은성 기자

대면소통 강화 · 공감경영 실천

전북대, 매월 '총장 만남의 날' 운영… 구성원 의견 청취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대학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새로 개편된 대학 홈페이지에 '총장 만남의 날' 온라인 면담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감경영 및 대학발전의 동력을 모아내겠다는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 후 대학소개 메뉴 내 총장실에 구축된 '총장과의 만남 신청' 코너를 이용해 면담을 신청하면 된다.

'총장 만남의 날'은 정기적으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총장실에서 직접 총장과 신청자 간 대면 만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총장 선거 당시 구성원들과 약속한 '총장 만남의 날'을 운영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학내 소통창구를 확대해 대학 구성원 모두를 위한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업 1명 · 시설 2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1일 누리집을 통해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업(일반전기) 직렬 1명, 시설(건축) 직렬 2명을 선발하는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공업(일반전기) 직렬 2명, 시설(건축) 직렬 4명이 응시해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은 지난 2일 치러졌으며, 합격자는 공업(일반전기) 직렬 1명, 시설(건축) 직렬 2명이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1일 대학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 핵심인재 양성 · 지역사회 발전 견인

우석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교류협력 위한 협약 체결

맞춤형 인재 육성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적극 협력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1일 대학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임상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인적자원개발(HRD) 동향 공유 및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협력 및 기술 교류 △리더십 · 행정혁신 · 직무역량 등 분야별 강사 풀의 정보공유 및 지원 △교육 관련 시설 · 장비의 공동 활용 △해외정부 및 지방정부와 공무원 역량 강화 등 관련 학술대회의 공동 개최 △해외정부 및 지방정부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노준 총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함께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인적자원 등의 유기적 교류협력으로 지방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원장은 "양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협력 분야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7월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 김지혜 박사과정생, 전자기록물 장기 보전체계 개선 연구

전북대학교 김지혜 박사과정생(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지도교수 양동민)이 202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박사과정생은 향후 2년간 연간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은 박사과정생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지혜 박사과정생은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장기보존패키지 및 보존포맷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보존 전략의 한계를 분석하고,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존포맷 선정 기준과 장기보존패키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김 박사과정생은 "이번 과제가 선정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양동민 지도교수님과 기록관리학과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태봉초, 5~6학년 학생 대상 패러글라이딩 프로그램 운영

태봉초등학교가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패러글라이딩 '태봉초 하늘을 날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완주군 구이면 경각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이뤄졌다. 6학년은 지난 7일 완료했고, 5학년은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9월부터 학교 교육과정으로 2시간의 항공 역학 이론 교육, 4시간의 운동장 패러글라이딩 실전 교육, 그리고 2시간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적응 교육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정신과 항공 관련 직업군을 경험하고 있다.

손주원 교장은 "하늘을 나는 순간, 학생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설렘과 자신감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이 경험이 항공 관련 직업군으로의 꿈을 넓혀가는 하나의 점으로 자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가 학생들은 "하늘을 나는 순간, 마치 새가 된 것 같았고, 그 자유로움이 정말 행복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도전을 계속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전동휠체어를 탄 학생도 긴 준비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경험을 했다.

/장은성 기자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과 전망 | 한 · 중 인공지능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한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 현황과 전망을 가늠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지난 9~10일 이틀간 전북대 법전원 한옥동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한 · 중 인공지능법학회 창립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센터장 송문호), 중국 서남정법대학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과 입법 방향을 한국과 중국의 관련 법 연구자들이 학문적으로 교류해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행사 첫날 양국의 대표적인 법학자들이 인공지능 입법의 이상적 구조와 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도전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의료, 가상인간 산업, 자율주행차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인공지능 기술이 제기하는 법적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 현황과 전망을 가늠하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지난 9~10일 이틀간 전북대 법전원 한옥동에서 열렸다.

이어 둘째 날은 인공지능법의 입법 동향과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송문호 교수는 "이번 학회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학문적 통찰과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며 "AI 시대에 발맞춰 양국의 법학적 연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5층 접견실에서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와 '학교급식 한우 맛체험' 기증식을 가졌다.

한우 급식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전북교육청, 한우협회 전북지회와 '학교급식 한우 맛체험' 기증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일 5층 접견실에서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윤섭)와 '학교급식 한우 맛체험'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에서 한우자조금을 통해 미래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한우 맛을 제대로 알리고자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로 지정한 매년 11월 1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올해 도내 130개 학교, 1만5,0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우고기 2,040kg(7,2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정윤섭 지회장은 "2015년부터 한우농가들이 스스로 이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을 제정해 매년 학교급식에 한우고기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느끼고, 한우고기 애호층이 늘어나 한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우리 학생들이 한우의 맛과 가치를 알게 되고, 나아가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문화를 배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 3.0 사업단, 우수상 수상

'K-Tour Idea Challenge 2024' 서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김상진)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K-Tour Idea Challenge 2024'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학연협력 EXPO 부대행사로 진행된 'K-Tour Idea Challenge 2024'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산업 및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주대 LINC 3.0 사업단을 비롯해 관광거점도시 기반 LINC 3.0 협의체를 구성한 10개 대학(가톨릭관동대, 동국대 WISE, 목포대, 부산여대, 안동대, 울산대, 전주대, 제주대, 한국교통대, 한남대학교) 연합 주최로 진행됐다.

교내 예비 심사를 거쳐 연합체 공모전 최종 발표에 올라간 전주대 한규성, 손대립 학생의 〈MZ 하지 못해 미안해〉팀이 제시한 '한옥마을을 이용한 전주 활성화' 아이디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상진 단장은 "앞으로 문화관광 사업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전주대 LINC 3.0 사업단 등 9개교가 지역관광 활성화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군산시와 글로컬 K라이브크머스 프로그램 운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지난 9일 오후 4시 군산 콘텐츠팩토리에서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관심인구와 마을기업이 상생 · 동행하는 글로컬 K-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양성 교육과정 출범식을 진열었다.

사업은 기초 3개, 심화 2개 과정으로 총 5개 과정이 진행되며, 기초과정은 '글로컬 인플루언서 양성과정, 다문화 글로컬 인플루언서 양성과정, 유학생 글로컬 인플루언서 양성과정' 이며, 심화과정은 '글로컬 관광 라이브커머스 마케터 양성과정, 글로컬 푸드 라이브커머스 마케터 양성과정'으로 운영된다.

/군산=이재춘 기자